

‘신월시영아파트’ 사업시행자 지정...신월동 대규모 정비사업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1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한국토지신탁이 토지등 소유자 80%, 토지면적 기준 85%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한 지 22일 만에 이뤄졌다. 구는 신월동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인가 등 향후 행정절차 역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은 ‘신탁방식’으로 추진된다. 신탁사가 인허가, 시공

사 선정, 분양, 정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문정비업체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반에 참여해 전문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신탁은 ▲정비사업 시행규정 확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계약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월시영아파트는 부지면적 15만 3천㎡에 용적률 250%를 적용해, 기존 12층 2,256세대에서 최고 21층 3,14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한울근린공원, 독서공원, 금실어린이공원 등 풍부한 녹지 인프라를 갖춘 입지에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되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숲세권을 갖춘 명품 단지로 변화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동아파트 재건축뿐 아니라 신월동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월시영아파트 사업시행자 지정이 신월동 일대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서 역대 최고 2000억 투자유치

‘트라이 에브리싱 2025’ 방문객 8,578명·투자유치 2천억...전년 대비 2배 이상 ↑

해외 VC·대기업 참여 및 밋업 건수(190→541건) 등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대폭 확대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세계 8위에 오른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에서 다시 한번 그 경쟁력을 증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를 통해 8,578명의 방문객, 총 2,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액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은 지난 6월 글로벌 창업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2025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세계 8위, 아시아 2위로 선정되며 2년 연속 글로벌 톱 10에 진입했다. 특히 자금조달 분야 세계 5위, 지식축적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민간 협력형 글

로벌 창업축제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875개 스타트업(해외 87개)과 337개 투자기관(해외 35개)이 참여해, 작년 대비 각각 1.8배, 1.4배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Dive Deep, Fly High’라는 슬로건을 내건 올해는 DDP 아트를 내 3개 무대에서 담끬,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과 관련한 강연, 포럼 등 총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21년부터 매년 개막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진출 ▲개방형 혁신 확대 ▲미래 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 서울 창업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행사장에는 120개 전시·홍보 부스 중 71개가 스타트업 부스로 운영됐고, AI·바이오·우주항공·CES 혁신상 수상 기업 등 첨단산업 중심 구성을 통해 서울 창업생태계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는 서울이 스타트

업 지놈 보고서에서 강점으로 평가받은 AI·빅데이터·바이오·로봇 분야 산업 구조를 잘 보여줬다.

시는 올해 밋업 부스를 15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밋업 건수 541건, 참여기관은 104개사(VC 56, AC 16, 대·중견기업 19, 창업기관 13)로 투자 네트워크의 폭을 대폭 넓혔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총 1,771억 원(국내 638억 원, 해외 1,133억 원) 규모의 투자 검토가 이뤄졌으며, 연말까지 2,000억 원 이상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특히 해외자본 비중이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서울이 ‘글로벌 투자 중심 도시’로 부상했음을 입증했다.

글로벌 VC와 대기업의 참여가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5개국 5개 기관)보다 참여 해외기관의 숫자가 증가한 올해(9개국 12개 기관)는 글로벌 VC인 500글로벌과 앤틀러를 비롯해 삼성물산, KT,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신한금융그룹 등 대기업 4곳이 참여해 13개 스타트업과 기술협력·PoC(개념검증)을 진행했으며, 이는 전년(1개사)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트라이 에브리싱은 올해 시민이 즐기는 창업축제로 한 단계 진화했다. 전체 방문객 8,578명 중 일반시민 3,951명(46%), 홍보대사 ‘플레이브(PLAVE)’ 팬 580명이 현장을 찾아, 청년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축제 문화를 만들어냈다. 인플루언서·대학생 서포터즈·외국인 유학생 등 80여 명이 행사 운영과 홍보에 참여해 MZ세대와 글로벌 세대의 교류 장으로 확대됐다.

이장성 기자

서초구, 구민 맞춤형 공공버스로 전방위 교통복지 실현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효도버스’, 구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버스’ 등을 포함한 총 12개 노선의 무료 공공버스를 운영하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광범위하고 내실 있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25인승 버스 총 12대를 투입해 하루 총 76회 무료 공공버스 운행으로 지역 내 복지관, 도서관, 체육관 등 주요 공공시설과 주거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 서초구의 무료 공공버스 시스템은 단순히 ‘무료’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문화·체육 등 구민의 생애 주기와 수요에 맞춘 맞춤형 노선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서초구 무료 공공버스의 핵심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다. 2018년 첫선을 보이기 시작한 효도버스는 올해 9월까지 누적 이용자가 57만 명을 넘어 서초구 어르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됐다. 이를 그대로 서초구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셔다드리는 ‘효도’를 하고 있는 이 버스는 5개 노선으로 지역 내 노인복지관 3개소와 노티나무덤터 5개소를 경

유하고 있다.

역시 2018년부터 시작해 현재 5개 노선을 운영 중인 문화버스는 문화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심산기념문화센터 등 주요 문화시설과 주거지를 연결한다. 탑승 시 문화시설 수감증, 회원증 등을 제시하거나 지역 문화행사 관련 SNS, 문자를 보여주면 누구든지 탈 수 있다.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버스도 운영 중이다.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는 2022년부터 운행되어 체육관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강남구 ‘시니어 재능플러스단’ 출범...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공헌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11월 5일 구청에서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은퇴 후에도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니어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문 재능을 지역사회 자산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은 영화배우, 은퇴 의사·한의학자, 대학 교수,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 강남구 거주 시니어들로 구성됐다. 9월부터 진행된 공개모집과 선발 과정을 거쳐 보건·의료, 문화·예술,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선발된 100명의 단원이 이번 발대식에 참석했다.

기존에도 일부 복지관 등을 통해 시니어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이 소규모로 이뤄졌지만, 구 차원에서 공개모집과 선발을 통해 정식 인력풀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니어 인재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발대식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강남구 홍보대사이자 이번 시니어 재능플러스단 명예단장을 맡은 이병준 배우, 이은숙 단장, 김정곤 부단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선서를 통해 “재능과 열정을 나누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세대 간 다리를 놓아 젊은 세대와 공감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제 5회 고흥유사축제
2025.11.06.(목) ~ 09.(일)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701-7번지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안 선정

여의대로변 지상부 광장으로 계획, 공공성 갖춘 한강-여의도공원을 잇는 복합문화시설

서울시는 4일(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에서 ‘디자인캠프 문바디옴피’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6,000㎡ 규모의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해당 시설은 당선자와 연내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에서는 서울의 수변 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여의도공원 및 한강과의 연계성,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향하도록 수직으로 배치하고, 개방형 로비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계획해 다양한 도시의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여의대로 변 지상부를 광장으로 계획해 시민들이 여의도공원과 한강을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고, 야외공연장에서는 무대 크기의 화면을 통해 누구나 대공연장의 공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게 설계했다.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에서 “한강과 여의도공원, 여의대로 변 방향으로 열린 공간을 제시하여 도시적 맥락을 세심하게 해석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여의도의 새로운 문화적 랜드마크로서 도시와 조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심사에는 ▲최문규(연세대학교 교수, 심사위원장) ▲구자훈(한양대학교 교수) ▲심희준(건축공방 대표) ▲전숙희((주)와이즈건축사사무소 소장) ▲전유창(아주대학교 교수) ▲최중희(배재대학교 교수) ▲안호상(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정환(홍익대학교 교수, 예비) ▲이태섭(티스페이스 디렉터, 예비) 총 9명이 참여했다.

이장성 기자

화롭게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장성 기자

고립가구 관계망 형성 돕는 '아름다운 동행가게' 100호점 돌파

아름다운 동행가게...지난 3월에 1호점, 7개월 만인 10월에 100호점 탄생

서울시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동행가게」가 100호점을 돌파했다. 올해 3월, 1호점이 생긴지 7개월 만의 일로, 아름다운 동행가게는 물품 기부와 더불어 고립가구들과 동행활동을 통해 이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올해 3월, 아름다운 동행가게 1호점으로 박대박 부대찌개(노원구 상계동)가 참여했으며 7개월 만인 10월, 동방유통(강북구 미아동, 과일 소매업)이 100호점으로 함께하게 됐다.

아름다운 동행가게는 지역상점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고립가구와 함께 다양한 동행활동을 하며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되어주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참여형 나눔사업이다.

시는 상점 중심의 나눔이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연결되고,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행가게’를

기획하였다.

각 복지관은 아름다운 동행가게 참여 독려를 위해 모집 캠페인, SNS 홍보 등을 추진하였다.

시는 아름다운 동행가게가 관계망 형성을 통해 고립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서로 교류하며 돌보는, 새로운 지역사회 돌봄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동행가게를 확충·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